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9월 18일
제1914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4)



〈103위 순교 성인〉, 문학진 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다해)

제 1 독 서 지혜 3,1-9 |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화 답 송 시편 126(125)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39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⁴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²⁶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충효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 위를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음 묵상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는 주님께서 수난과 부활에 대한 첫째 예고(루카 9,22 참조)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문맥상 그분께서 지고 따르라 하신 십자가는 ‘고된 일상’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죽음’에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신앙이 내게도 가능할까 싶지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일만여 명의 순교자들은 모두 우리보다 앞서 수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들입니다. 제1독서인 지혜서는 이러한 의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단련을 받았고,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가끔은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이어 가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럴 때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일정 선에 이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믿음을 주십사 더 청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우리가 온갖 결핍과 환난을 이겨 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제2독서 참조).

오직 하느님만 바랐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가난과 죽음의 위협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순교 성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며칠씩 걸어가 미사를 드릴 사제를 모셔 오고, 깊은 산골에 숨어 화전을 일구고 솥을 구워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 가면서도, 척박한 일상이지만 기쁨을 찾고 불멸의 영광을 준비하던 순교 성인들의 복된 하루가 바로 지금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묵상

순교성인화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곡식을 거두리라.”(시편 126,5)

1976년 9월 당시 해화동본당 박희봉 주임신부는 문학진(토마스) 교수에게 ‘103위 순교복자성화’를 의뢰하였다. 작가는 10개월에 걸쳐 전례, 역사, 복식 등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과 한국적 주체성을 살려 순교자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복장을 특색있게 그렸다.



시대와 신분이 각각 다른 순교자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천국의 개선을 기다리며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안겨준다. 그리고 천사들은 선녀의 모습으로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하늘 위에서 순교자들을 축복하고 있고, 아기천사들은 동자의 모습으로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순교자들이 천상에 오르는 것을 경축하고 있다.

배경의 산세는 아름다운 도봉산의 일부로 한국의 전통과 토속적인 모습을 풍기고 있다. 이 성화는 1977년 7월 15일, 김수환 추기경의 축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후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한국순교복자’ 모두 성인품에 오르게 되었고, 이 작품이 여의도 103위 시성식장에 걸리게 되었다.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생교회의 전통을 지닌 한국천주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103위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곡식을 거두리라.”(시편 126,5)

<손용환 요셉 신부>

선조들의 신앙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한국 고유 감사송 1: 선조들의 신앙 중>

-프란치스코 교황-

“‘수업식’ 교리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3차 국제교리교사대회에 참석한 1400여 명의 교리 교사들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교황은 전 세계에서 온 교리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초대했다. “교리 교사가 되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학교 수업식’의 교리 교육을 피하십시오. 교리 교육은 학교 수업 시간 같은 게 아니라 신앙의 살아있는 체험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황은 신앙의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교리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교리 교육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아이들, 젊은이들, 성인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리 교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 안에서 그분이 커지셔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황은 열정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리 교사가 되는 것에 지치지 말라”며 “학교 수업식’의 교리 교육을 피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앙의 전달이 교리 교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연령과 준비 상태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대인적 만남만이 처음으로 접한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게 하고 교리 교육이 허용하는 올바른 역동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북돋아주기” 때문이다.

교황은 또한 교리 교사들에게 “새 삶의 증인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인용했다. “복음화의 특권적인 단계인 교리 교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 안에서 그분이 커지셔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1 호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 오후 1:30 (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사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호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15입니다.)

2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3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9월 23일(금) 오후 8시 (B-1,2)
- 각 단체 부장, 차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뜨레아 월례 모임

- 일시 : 9월 23일(금) 7:30 미사 후 (A-1,2,3)

5 루카회 월례 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3)

6 요한회 월례 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1,2)

7 KoC 월례 회의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4)

8 CYO 피아노 반주/성가/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서 함께 노래와 반주로 봉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 6th grade(Singer)/7th-12th(Singer·Instrument)
- 오디션 : 9월 25일(일) 오후 4시 주일학교 수업 후 (하상관 지하 #7)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9 대부모, 대자녀 신앙으로 인도하기 프로젝트 친교 모임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친교실 A-1,2)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달리기

- 일시 : 10월 22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성당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0(3명)
- 문의 : 복지부장 김 소피아 (703) 314-0905
- ※ 아침식사로 순두부 백반을 드립니다.

11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및 구입 안내

- 일시 : 10월 1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사무실
-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줄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3 결혼 희년 미사 안내

- 결혼 25주년(1997년), 50주년(1972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3시, 알링턴 주교좌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3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14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37,320

15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 주일 및 평일에 본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봉사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병자성사, 면담성사, 사무실·상점 축복, 가정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믿음 안에 함께 해요, 우리

“이번 주에는 성당에서 레지오가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그 시간에는 미사를 가야 해서 모임이 곤란해요.”
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레지오는 주에 1회 단원들과 함께 기도를 약속한 날입니다. 주일 미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을 받드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요.



변형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된 성물은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묵주와 기적의 메달, 스키폴라 등 제작처가 불분명한 성물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11일(연중 제24주일)

주일 헌금	\$ 5,867.00
교무금	\$ 9,240.00
교무금(신용카드)	\$ 1,920.00
감사 헌금	\$ 260.00
2차 헌금	\$ 2,011.00
온라인 봉헌	\$ 2,540.00
합계	\$ 21,83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9월 22일(목) 오후 5:00-6:00
9월 23일(금) 저녁 8:00-9:00
9월 25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6) 마르세이유 마조르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4)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체육관 사용 주의사항

- ▶ 체육관 사용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본당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 체육관 사용은 본당 사정상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 사용 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합니다.
- ▶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사형 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table border="1"> <tr>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 7:30 PM	• 11:00 AM		
• 7:30 PM	• 11:00 AM				